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영전저수지 준설 추진

부안군은 수년간 토사가 퇴적되어 수원이 부족한 영전저수지를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항구적인 가뭄해소 목적으로 준설사업을 추진한다.

보안면 영전저수지는 유역면적 132ha, 총저수량 27만2000㎥ 규모의 저수지로서, 사업계획단계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가시연 군락지는 보존하면서, 수년간의 토사퇴적으로 인해 발생한 저수량 감소문제를 해결하여 내년도 가뭄해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영전저수지 습지식생 보전관리'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통해 효과적인 준설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저수지 준설사업이 완료되면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가시연 군락지는 보존하면서도, 수년간의 토사퇴적으로 인해 발생한 저수량 감소문제를 해결하여 내년도 가뭄해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의 특성상 농민들이 이용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내년도 농민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통계컨설팅 실시

정읍시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읍시 통계컨설팅을 호남지방통계청과 함께 추진한다.

통계컨설팅은 시의 통계 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해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간 시는 3개 부서별 인터뷰를 통해 지역 특화통계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체 정책개발을 위한 '행토지원조사', 외국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외국인 고용현황 조사', 관광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관광지별 음식, 숙소, 관광객 실태조사', 특화작물 개발을 위한 '농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조사' 등이다.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지역 정책 수립 시 통계 필요성이 66.9%, 업무 수행 시 통계 필요성이 88.7%로 업무 추진에 있어 통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인터뷰 결과와 설문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가 되는 지역특화통계를 10월까지 발굴하고 내년에는 시 기본통계에 대한 DB 구축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와 호남지방통계청은 27일 지역특화통계 개발과 향후 정읍시 통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가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정읍 제조업 혁신 앞당긴다

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정읍시가 지역 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제조업의 성장을 하락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제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ICT, 설비 및 자동화 솔루션이 융합되어 시장과 고객이 요구하는 스마트 제품을 적시에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전 제조과정의 의사결정과 운영체계가 최적화된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사업은 대기업이 가진 경험·노하우·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협업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대기업의 제조현장 혁신역량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에 확산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과 더불어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올해 81개사 구축을 목표로 그간 20여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에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 전북테크노파크 내 스마트제조 혁신센터로 설치해 지역 거점기능을 수행토록 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구축 목표수를 상향 조정해 공급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20억 원 지원 또한 20~30% 확대해 제조업 스마트화 추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북도·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공장 구축 회

망 기업체와 관계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공장의 개념과 도입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구축 성공사례 성과를 공유했다. 또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협력모델 발굴에 힘을 모으기 위한 방안을 소개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공장 배움터 설립 등 제조업 스마트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전북도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지원 확대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새만금 개발 본격 추진 대비 고속교통망 조성 위한 의견 모아

정읍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북 서남권 관광벨트의 입지형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7일 '정읍 신성장동력 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 SOC 분야 워크숍을 열고 새만금 개발의 본격 추진에 대비, 고속교통망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워크숍에는 부서장과 팀장, 연구진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SOC 분야에서 제시된 전략과제의 세부내용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과 관계 공무원 등 관계자들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치며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주요 의견은 △단점들을 보완한 적합성과 실용성이 어우러진 사업 △정읍의 정체성을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 △농·특산품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군형발전을 위해 이점이 예상되는 사업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등이다.

또 부서별로 발굴된 신규시책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지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 전략과 일

일한 관광 활성화, 농업농촌 발전방안 등에 대해 용역 시행 연구원, 공무원과 함께 모여 미래지향적인 공감 토론의 장을 열게 됐다"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 내용에 충실히 반영해 행복 도시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5개 중점분야별 단기·중장기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용역은 국가 예산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9월까지 추진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자연생태계 보존 확립 계기 마련

고창군 심원·해리면 일원 영전부지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고창군 심원·해리면 일대의 영전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8일 고창군은 최근 고창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원면·해리면 일원의 영전부지(면적 395만8800㎡) 일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영전부지는 폐전된 지 25년이 지나 생태계가 복원되었으며, 해안과 내륙간의 인종역할을 하고 있어 난개발을 억제하는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앞서 이와 같은 가치로 인해 지난 2016년 10월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설허가

거부처분 취소를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 영전부지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전일업 생산자와 심원·해리면민, 사회기관단체, 재경 군민회, 고창군의회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3년간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 안에 고창군에선 생물권 보전지역과 탐사르습지에 어울리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한발 더 앞서는 행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생활·음식물 종량제 봉투 내달 1일 인상

부안군은 종량제봉투가격,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을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및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종량제 봉투(일반, 음식물) 가격은 3 1 80원→110원, 5 1 150원→200원, 10 1 250원→350원, 20 1 500원→700원, 30 1 700원→1,000원, 50 1 1,200원→1,600원, 마대(50) 1800원→2500원, 이종식 쓰레기수거함은 1톤당 수수료를 4

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국도비보조 없이 부안군비로만 운영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적자 누적액이 크게 증가하고 2017년부터 부득이하게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쓰레기 발생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률이 증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안군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재활용품수거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지급 등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서, 현장방문 위반사례 공유 통한 비위예방 총력

고창경찰서(서장 박정환) 청문감사실은 최근 발생한 비위 사례 및 주요 현안들을 공유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시켜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경찰은 금품수수 등 중요 비위급감으로 조직의 청렴도가 향실된 반면, 음주운전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줄일 수 있는 일탈행위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를 방지할 경우 경찰조직의 신뢰에 대한 미려가 없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이를 극심도로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쳐 5개 중점분야별 단기·중장기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용역은 국가 예산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9월까지 추진된다.

에서부터 신중한 언행을 생활화하도록 지속적 교육을 통해 실천하고 있으며, 신분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상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양지구대 감대는 경장은 "위반사례 공유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무 위반 행위를 접한 후 많이 놀랐으며, 앞으로 경찰 활동을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서장은 "의무위반행위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과 가족에게 큰 절망을 주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